

감나무재배(2)

이 여 하

<건대 농대 교수·농학박사>

5. 살구나무의 개원(開園)

중전의 살구나무가 주로 발뚱이나 농가 주변의 공지를 이용하여 식재되어 왔으나 규모가 큰 살구나무 재배를 위하여는 산지식재를 권장하고 있다.

산지라 하더라도 20도 미만의 완경사지가 적합하고 그 이상의 경사지는 토심이 얇고 척박하여 경영면에서 불리하다.

경사지식재에서는 토사유출이 예상됨으로 간단한 계산을 등고선에 따라 설치하고 식재함이 유리하다.

식재거리는 토양의 비옥도가 중정도라면 5.4m×5.4m의 거리로 1ha당 333주를 식재한다.

환경조건이 낮은 곳은 그보다 훨씬 밀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식재시는 등고선에 따라 식재됨으로 가급적 장방형으로 5m×6m의 거리간격으로 1ha당 320주를 기준하여 식재하면 유리하다.

식재시기는 춘식과 추식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추식으로 낙엽직후인 11월 초순이 알맞다.

춘식은 3월 하순에서부터 식재하나 당년 생육에 있어 추식보다 다소 저조한 편이다.

척박한 토양에 식재할 때에는 구덩이를 90cm×120cm로 깊게 넓게 파주어서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여 주고 구덩이 밑에는 퇴비를 구덩이당 약 10kg를 휴과 혼합하여 넣고 그 위에 석회 용성인비와 같은 화학비료도 휴과 혼합한 뒤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한다.

살구나무의 국내산 일반 품종은 자가 수정이 가능하나 외국산 품종들은 자가 불결실성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수분수로서 품종이 다른 것끼리 혼식을 한다.

이로 인하여 생리적 낙과를 막을 수 있고 착과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살구나무개원은 다른 품종과 혼식을 하므로서 생리적 자연적 낙과를 예방할 수 있고 완전 수정에 의한 착과율도 높일 수 있으므로 약 20% 정도의 수분수를 식재토록한다.

또한 식재방법 중 점질토양에 식재했을 경우 배수에 유의하고 식재 후 식혈부분이 침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식재시 약간의 복토를 하여 주도록해야 강우시 구덩이로 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비배관리

살구나무는 유실수 중 어느 수종보다도 자연의 적응력이 강하여 비료의 요구량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어린 유목을 빨리 성장시키고 우량한 품종의 과일을 수확하려면 산지의 토박한 땅에서 부족되기 쉬운 질소 인산 가리의 3요소 이외에 석회 마그네슘 및 붕소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목에 질소를 과용하면 생리적 낙과를 가져 올뿐 아니라 과일의 감미가 줄어들고 가지의 도장에 따라 각종 병충해가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성목인 경우 10a당 질소 11.3kg(3관)을 준다.

개간지토양 중에는 인산이 함량이 적어 결

뽑되기 쉽다. 인산부족지에는 잎이 좁고 뿌리의 발달이 불량하여진다.

시비량은 질소의 반정도로 조정하면 좋다.

가리의 시비는 성목인 경우에 많이 실시하는데 과일의 품질은 높이기 위하여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시비량은 질소보다 다소 낮게 주면 좋다.

참고로 신선한 살구 중의 3 요소의 비율을 보면 질소 100에 대하여 인산 15, 가리는 155이다.

이하 살구나무의 수평별 주당 삼요소 시비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료	수평	년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질소		50	100	230	370	520	640	690	700
인산		30	60	130	190	260	320	350	350
가리		30	95	150	300	420	550	630	650
비고		성분량 gr							

살구는 조숙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봄에 시비하는 것보다도 추비(秋肥)가 좋고 봄에 줄 때는 해빙과 더불어 일찍 주어야 좋다.

7. 수 확

살구의 알맞은 결실율은 20% 전후가 되어야 좋은 품질의 과일은 수확할 수가 있으므로 5월 초순까지는 적당한 적과를 하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재래품종은 외국 도입종 보다 그 성숙기가 빠르다.

일본종에 비하여는 10일 미국종에 비하여는 약 20일 정도 빨라서 이른 것은 6월 중순이면 수확하는 것도 있다.

수확은 품종별 고유의 색과 광택이 날 때 실시하는 데 전과용과 생식용은 완숙기를 마추어 수확하고 멀리 수송을 한다던지 통조림과 같이 가공을 목적할 때에는 물러지기 전에 수확하도록 함이 좋다.

수확은 같은 나무라하더라도 그 시기가 고르지 못하므로 2~3회 나누어 수확하면 품질이 균일한 과일을 수확할 수 있다.

대체로 수확시기는 과피의 녹색이 엷은 황색을 띠우고 과실을 손으로 쪼개면 쉽게 쪼개

지고 속의 살구씨가 빠져나올 수 있는 때라면 틀림없다.

수확할 때 주의할 일은 땅에 떨어지면 과육의 표피가 상하기 쉬우므로 보리짚을 바닥에 깔고 따면 과피의 파열이 생기지 않는다.

8. 병충해

일반 과수에 비하면 병충해의 피해가 적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유실수로서 경영 재배할 때는 평소 병충해방제에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1) 살구의 모니리아병

살구의 과실에 생기는 병인데 유과의 초면에 원형 갈색으로 처음 번지다가 회색의 돌기가 둥글게 나타나 나중에는 나무에 달라 붙는다.

방제법으로서는 나무위에 달라 붙은 과실과 떨어진 과실에 땅에 묻히기 전에 모아서 태워 버리고 개화직전에 석회유황합제 0.5도 액을 뿌려준다. 또한 살구발 주위에 석회를 자주 뿌려 이 균의 발생을 막는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2) 줄기마름병

어린 살구나무의 가지나 줄기에 처음 갈색을 띠우고 조금 부풀어 올라 썩는 병징을 가지고 있다.

방제법으로는 가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배수를 철저히 하고 질소비료의 과용을 삼가고 환부는 칼로써 깨끗이 깎아내고 알콜로 소독해 준다.

(3) 복숭아 유리나방

유충이 나무껍질질속을 갉아먹어서 해를 한다. 6월에서 9월 상순 사이에 식해하는데 지오 단 100배액이나 구사치온 1000배액 살포한다.

(4) 진드기

유충이 주로 신초부에서 즙액을 빨아 해를 준다. 방제법은 주로 가름에 메타사투스 1,500 배를 살포하면 특효하다. ■